

사라지는 은행점포... 취약층 위한 '우체국 은행대리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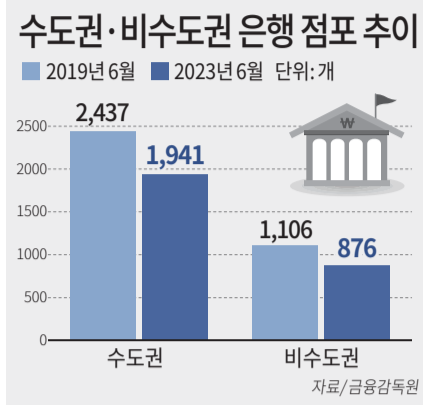
4대은행 수도권 점포 5년새 20%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우체국 활용 '은행 대리업' 대두

금융사고 대비 은행업 개정 필요
책임·피해보상 의무 등 마련해야

모바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이들이 늘면서 은행 점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지난 6월말 기준 2817곳으로 집계됐다. 5년전인 2019년(3543개)과 비교하면 726곳(2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은행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점포는 2019년 6월말 2437곳에서 2023년 6월말 1941곳으로 20% 감소했다. 그 외 지역은 같은



기간 1106곳에서 876곳으로 21% 줄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은행점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2500개 우체국을 은행의 점포로 활용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과 기업·씨티·전북·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체국에서 별도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우체국 예금창구 모습

및 ATM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체국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해 예적금 계좌개설에서 대출까지 허용하는 설명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대리업을 은행업에 도입하고 있다"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경제활동 시 금융 이용이 필수적인 점에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근시일내 은행대리업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은행 횡령 사고 등이 빚발쳐 채무구조도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에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무를 위탁 받은 우체국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은행대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보안사고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도 명확히 한 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기 위해선 은행업을 개정해 제3자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의무 등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업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저하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대리업에도)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은행은 대리업자 감독과 소비자 손해배상 의무, 대리업자는 건전성확보 및 소비자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中 '빅2' 조선사 합병 초읽기... K조선, 경쟁력 확보 과제

CSSC-CSIC 합병엔 시총 56.5조
세계 조선 수주 3분의 1 차지 할 듯
국내 조선사 부족한 인력 확보 시급

중국 '빅2' 조선사의 합병이 임박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그간 중국은 저가 선박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이번 합병을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22일 영국 조선해운시황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월 글로벌 선박 수주 누계는 4976만CGT(1733척)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631만CGT(1657척)을 넘어선 수치다. 이중 한국의 수주량은 872만CGT(201척,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전경

18%)이다. 중국은 3467만CGT(1222척, 7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1위·2위 조선사가 합병 수순에 들어가며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선

박집단유한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의 합병은 CSSC가 CSIC를 주식 교환을 통해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흡수합병은 중국 당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SSC는 강남조선유한책임공사·상하이외고조선유한공사·중선징서선박유한공사·광선국제한공사 등 산하에 4개 조선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CSSC의 점유율은 중국시장에서 16%, 세계시장에서 11%다. 시가총액은 1561억위안(약 29조 4000억원)이다. CSIC는 산하에 다렌조선·우창조선·베이하이조선 등이 있다. 시가총액은 1136억위안(약 21조 4000억원) 수준이다.

양사가 상하이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SSC는 합병을 통해 국가주

요 전략과 주력 사업인 군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선박건조사업의 질적 발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경제매체들은 이번 합병 완료 시 총 자산과 시가총액이 각각 4000억위안(약 75조 3000억원), 3000억위안(약 56조 5000억원)에 달하고 세계 조선 수주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 조선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20%에 머물렀던 중국의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은 1년 만에 40%대까지 급등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의 주요 선박 18종 가운데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14종에서 신규 수주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합병이 한국 조선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수주한 일감을 선종별로 야드에 몰아주면 효율성 증대와 제조 경험 향상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에는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족한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당하고 있지만 숙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올해부터 연평균 1만 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27년부터는 약 13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급증하며 경쟁이 이전보다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

삼성바이오, 1.7조 초대형 위탁생산 계약 체결

국내업계 최초 누적 수주 4조 돌파
압도적 생산능력·품질 경쟁력 갖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K바이오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4조원 돌파를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연 매출 4조원 시대를 열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7028억원 규모의 초대형 의

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 2023년 한해 총 수주 금액인 3조500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37년 12월 31일까지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지난 7월에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46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록한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총 4조360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10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의 20%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

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5공장을 건설 중이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설계됐으며, 5공장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품질 측면에서는 배치 성공률이 99%에 이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BK, 주식매입가 증액도 시장 교란행위

>> 1만 '영풍 시장교란 행위...'서 계속

증액 없다고 속이고 75만원으로 ↑
83만원짜리 영풍 공개매수로 유인

이후 1차 가치분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자 2시간 만에 1차 가치분과 동일한 정점을 주장하며 2차 가치분을 제기했다. 이 또한 기각됐다.

박 대표는 이같은 MBK·영풍의 행위에 대해 공개매수 기간 동안 무리한 소송전과 여론전을 통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MBK가 공개매수 주식 매입가를 증액한 것도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하여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했다"며 "중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인 그들 스스로 고가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주당 89만원(고려야언)이 아닌 83만원짜리(MBK·영풍)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역선택'을 유인하는 사기적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차현정기자